

아랍에미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G D P	4,216억 달러 (2014년)
인구	9.55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44,148달러 (2014년)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UAE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3.67 (2014년 평균)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각각 세계 7위의 확인매장량(원유 978억 배럴, 천연가스 6.1조 입방미터)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부는 건설, 유통,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정정불안을 겪고 있으나, UAE는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아부다비의 군주)의 통치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원유 생산량 증가와 비석유 부문 성장으로 경제성장 지속

-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원유생산량 증가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보완하여 전년대비 0.7%p 둔화에 그친 4.5%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역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의 와중에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3.6%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2014년에는 주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지속,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6.5%) 대비 다소 하락한 5.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EIU는 2015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80달러(브렌트유)로 하향 조정 한 바, UAE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3.7%로 전망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송유관 네트워크 확대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부동산 매매가·임대료 급등으로 물가 상승 추세

- 2014년 물가상승률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 및 임대료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1.1%)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 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과 동일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e	2014 ^e	2015 ^f
경제성장률	4.9	4.7	5.2	4.5	3.6
재정수지 / GDP	4.1	7.8	6.5	5.9	-3.7
소비자물가상승률	0.9	0.7	1.1	2.3	2.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정부가 관광업, 금융업 등의 육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40%,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현재 UAE 정부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제조업, 금융, 관광 등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하락으로 2015년 UAE의 재정수지가 소폭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원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13년 말 기준 978억 배럴(세계 점유율 5.8%, 세계 7위)이며,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한편,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3년 말 기준 6.1조 m³(세계 점유율 3.3%, 세계 7위)이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기타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0%를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UAE 원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

- 최근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 정부는 2009년 1월 비석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전략을 발표, 아부다비 GDP 중 비석유 부문 수출의 비중을 2012년 1%에서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릴 계획임.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계무역 기지, 금융 허브 역할

-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임.
- 특히 석유, 은행, 상업용 부동산 임대 외에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 관세율 적용(5%)으로 낮은 수준임.
- 또한 6개월 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UAE는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는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으며, 특히 약 30여 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음.

3. 대외거래

□ 석유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 유지

- 석유수출과 중계무역 호조 등 양호한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각종 개발사업 관련 기술도입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한 1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6.8%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수출과 FDI 유입으로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 유지

-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이 2009년 말 251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흑자 및 FDI 유입에 따라 2014년 735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UNCTAD에 의하면, UAE는 2013년 한 해 동안 GCC 6개국 중 가장 많은 105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음. 석유 부문은 물론 산업다각화에 따라 비석유 부문에도 FDI 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 연간 FDI 유입액(억 달러) : 40(2009) → 55(2010) → 77(2011) → 96(2012)
→ 105(2013)

□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중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의 집계에 따르면, 1976년에 설립된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약 7,730억 달러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8,93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음.

- 그 밖에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 두바이투자회사(ICD), 아부다비국제 석유투자회사(IPIC), Mubadala 개발회사, 에미리트투자청(EIA), 라스 알하이마흐 투자청(RAKIA) 등에서 국부펀드를 각각 운용 중임.

- 현재 UAE의 국부펀드 규모는 최소 1조 달러로 추정됨.

□ 외채규모는 다소 과중한 수준

- 외채규모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 두바이의 대외채무 급증 이후에도 석유화학 부문 투자 증대,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말 GDP의 42.2%인 1,761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수준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 상 수 지	50,955	68,967	64,638	48,239	28,363
경 상 수 지 / G D P	14.7	18.5	16.1	13.3	6.8
상 품 수 지	106,595	131,982	137,101	128,398	114,867
수 출	302,037	349,481	378,609	400,093	412,646
수 입	195,442	217,499	241,507	271,696	297,779
외 환 보 유 액	36,091	45,826	66,951	73,451	76,451
총 외 채 잔 액	137,958	142,219	170,978	176,057	181,343
총 외 채 잔 액 / G D P	39.7	38.2	36.4	35.8	-
D S R	8.5	7.4	7.0	6.7	-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정치적 안정 지속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1971년 출범)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는 왕정을 취하고 있음.
-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하에 정치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왕족 일가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하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그 세는 미약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3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중 152위로 Authoritarian Regimes(독재 정권)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 표현 의견 게재 혐의로 고발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방되는 등 UAE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그 세는 미약함.
 - UAE 정부는 현재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정치세력 및 극단주의 조직들의 발호를 적극 억제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 UAE는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 “아랍의 봄”의 여파를 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됨.
 - 소득수준이 높고, 집권층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하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약 85%)이 높아 인근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군인·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 토후국간 소득격차 확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잠재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나 UAE 연방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과 식료품 보조금제 도입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3. 국제관계

□ 안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 UAE는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아울러 서방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원유수출과 투자유치 등으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GCC의 내부 결속 강화·발전은 지지부진

- GCC는 이란 및 역내 알카에다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성격의 협력체인 걸프연합(Gulf Union)의 결성에 대한 구상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내해(內海) 영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결정된 데 불만을 품고 UAE가 GCC 통화 동맹에서 탈퇴하는 등 갈등도 상존함.
- UAE는 2014년 3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카타르가 GCC 안보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11월에야 대사를 다시 파견하였음.
 - 동 안보협정에 따르면 GCC 회원국들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각국의 치안과 안정을 위협하는 단체·개인을 지원할 수 없음. 이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는 카타르를 겨냥한 것임.

-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자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반면,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음.

□ 이란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상황 유지

-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과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Abu Musa, Greater Tunb, Lesser Tunb의 3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 이들 3개 섬의 인근 해저에는 막대한 양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걸프 만의 입구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하여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이란은 1992년 Abu Musa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현재 이들 3개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UAE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두바이-아부다비 간의 채무만기 연장 합의

- 아부다비 채무부와 UAE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16일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두바이 정부에 대한 채권(약 200억 달러)의 만기 연장에 합의하였음.
- 두바이는 동 만기연장에 힘입어 2020년 엑스포 등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바이는 물론 UAE 전체적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72.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5.9% 증가한 반면,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 중심으로 1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음.

□ 우리 기업의 핵심적 해외건설시장

- 2014년 말 우리 기업의 대 UAE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684.2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총액(6,761억 달러)의 10.1%(전체 2위)를 차지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2014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365건, 10.7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UAE 투자는 2011년 연중 투자금액 2억 2,976만 달러로 집계 이후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투자누계액 기준으로 부동산업(33.6%), 건설업(21.6%), 제조업(15.3%), 도소매업(14.0%) 등이 주요 투자업종임.

< 표 4 >

한·UAE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6,862	5,738	7,225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 입	15,115	18,123	16,196	원유, 석유제품, LPG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아랍에미리트(UAE)는 GDP의 40%,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014년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원유생산량 증가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보완하여 전년대비 0.7% 하락에 그친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역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4년 중 5.9%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소폭 적자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요 정부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거주민의 85% 이상이 외국인으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미미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비중이 다소 높으나, 국부펀드 등 막대한 외화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고영애 (☎02-3779-5720)

E-mail: kya321@koreaexim.go.kr